

조그만 이익에 날뛰는
중생의 어리석음은 심이 없네.
마치 원숭이가 흥에 겨워
계 배를 두들기듯.
- 대보적경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군법당으로 피어난 불심

군 포교의 경우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그 이유로 종단의 군 포교에 대한 정책 부족 및 구조적 지원 체계 미흡, 법당 수 부족 등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모두는 따지고 보면 종단과 불자들의 군 포교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5월 한 군법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입대 당시 33%였던 군 불자 수가 군 생활을 거치면서 28.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생활 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어 뜻을 모았다고 했다. 지난해 부대로부터 법당건립 허가가 나자 강남을구 신도들은 감자와 옷 등을 팔아 법당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도회에서도 지난해와 올 초파일에 기금마련 연등달기 행사로 돕고 나섰고, 봉은사도 사찰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70여 명의 새 법당이 지어졌고, 3월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과 신도회, 강남을구 회원들과 군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게 됐다. 30명도 채 못어서기 힘든데 다 추운 겨울에는 밖에서 팔아 가져 법회를 보아야 했던 불자 장병들의 서러움은 이제 난방 시설은 물론 에어컨과 노래방까지 갖춘 새 법당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 보타사는 최근 일반 군장병들의 모임 장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어 앞으로 포교의 요지가 될 전망이다.

장군 죽 비

- ◇달라이 라마 2003년 한국 방문 희망. 그때 못 올지라도 실망할 일은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불자에겐 이미 국경이 없으므로. (22면)
- ◇'때리는 뿔에 맞는 손' 피해와 가해의 분별을 넘어 21일간의 단식 참회정진으로 해인사와의 갈등을 종식시킨 실상사 스님들. (27면)
-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댐 건설 NO, 절약 YES 아껴쓰고 다시 쓰고 깨끗이 쓰는 것 이상의 대안은 없다. (28면)
- ◇재가 불자들을 위한 생활불교의 동지 '유아정사' 개인 단계 수련은 물론 가족 단위 주말 정진도 가능. (22면)

무르익는 '조계종 사면'

9월 종회 종헌종법 개정안 상정 월하스님 대법원 소송취하 '호재'

조계종단의 화합을 위한 '사면복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인 제151회 중앙종회에 사면관련 종헌개정안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와 함께 정회회의를 이끌었던 월하스님(前 통도사 방장)이 최근 대법원에 조계종을 상대로 한 소송(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총무원장 자격부존제 취하서 제출)을 취하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과 함께 그동안 사면에 대해 거부감이 강했던 일부 종회의원들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면에 가장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진 중앙종회의원들의 친목모임인 *회의 한 스님은 "월하스님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98년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우리들도 결자해지는 차원에서 사면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정 해암스님 토굴 앞 삼배
7월 25일 '수행자들의 발로참회와 거둔임을 위한 21일 단식기도 정진'을 회향한 도법·수경·연관·재민·성륜 스님 등 실상사 스님 6명은 이날 오후 해인사를 방문. 조계종 종정 해암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원당암 미소굴 앞에서 삼배를 올린 후 복역근검의 뜻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했다. 해인사 원당암·고명배 기자

"완력 행위자 엄정 처리하라"

조계종 본사주지연 결의 실상사 참회정진 회향

실상사 스님들의 21일 단식 참회기도회향과 함께 폭력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 전국 24개 교구본사 주지들로 구성된 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수석사 주지는 7월24일) "승가의 각성과 관련 종법 대폭 강화를 통해 종단 내에서 폭력이 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

고 이달 15일까지 종단 주요 기관 및 소임자들에게 공개 청원서를 전달키로 했다. 추진위는 또 22일 '비폭력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제도적 과제'를 위한 대종토론회와 대종캠페인도 전개한다. 한편 실상사는 7월25일 오전 실상사 화엄하림 강당에서 종단 내 폭력근절을 위한 21일 단식기도 정진 회향식을 가진데 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교계 기관과 원로 스님에게 폭력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ews.com

다음주 신문(8월 8일자) 쉽니다

8·15 남북 법회 조계사서 열린다

8·15남북공동법회가 15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4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한 8·15남북공동법회를 전 회원종단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개최키로 했다. 이어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대표단 30명과 참관단 80명 등 총 110여명을 구성해 참가시키기로 했다. 또 행사중 열릴 예정인 '불교와 환경보존 세미나' 발표자 추천을 각 종단에 의뢰키로 하고, 3개국 스님들의 환경사진전시회 출품작 50점도 공모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北, 태고종에 단청지원 요청

조불련 전화통지문 "불교문화 교류 기대"

북한불교계가 태고종에 사찰단청 기술 지원을 요청해와 향후 남북의 단청기술이 북한의 사찰 복원공사에 참여하는 등 남북불교교류가 새 전기를 맞게 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최호은)은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태해)가 7월 24일 총무원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귀 종단이 종합적인 단청기술자료를 단청재료들을 제공 및 지원한다면 민족공동의 재보인 복의 사찰들과 문화유산에 대한 단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협력과 연대가 깊어지리라 본다"며 이에 대한 실무접촉과 단청기술자 초청문제를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이에 따라 25일 열린 총무원장 및 기관장 주요 간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단청기술자 파견 등 불교문화교류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태고종은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만나 단청 기술자 파견과 단청재료, 복원의 전통 또는 신축 사찰의 단청공사 지원 등 남북불교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경숙 기자 gskim@buddhanews.com

지역불교 문화기행

신라 불교문화를 찾아서

8월 : 석굴암·골굴사·기림사

지난 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다시한번 세계에 알린 석굴암 본존불(국보 제24호·사진)은 한국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석굴암에서는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내부 구조의 완벽함 조화미에 감탄사를 연발할 것입니다. 매월 단 김시습이 머물렀다는 천년고찰 기림사에서는 맑은 계곡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 함월산의 수려한 경치와 함께 대웅전(보물 제833호), 지옥과 열라대왕을 묘사한 명화, 와당 등 갖가지 진귀한 성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길에는 선두도로 유명한 골굴사에 들려 마애여래불 좌상(보물 제581호)을 천천히봅니다. 경주지역 불교문화기행을 통해 천년의 세월을 단숨에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천년했던 신라불교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 출 발: 8월25일(목)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 회 비: 5만5천원(초식·종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02-04-221460(예금주 선정호)
- 주 최: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주)한화여행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경매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7-8881, 02-722-4162 팩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 ####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명화가 화려한 달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취한다.
 - 보배속의 보배: 룬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뎀들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멤버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